

노사 신뢰 다 무너뜨린 보쉬자본!

합의사항 일방적 파기로 시작된 지부 천막농성

지부가 지난 5일부터 대전 한국로버트보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오늘로 20일째다. 보쉬자본이 임단협 도중 돌연 중앙교섭 탈퇴하는 등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이다. 보쉬자본은 지부교섭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노사 관계를 일부러 파탄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부는 보쉬를 악질자본으로 지목했다.

지회 혼란 틈타 노골적으로 탄압

천막농성이 계속되는 와중에 보쉬지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지회 집행부가 사퇴하게 됐다. 그러자 보쉬자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탄압을 시작했다. 지회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노조활동에 개입하려했고, 지회에 제공하던 사무실, 비품, 전임자, 심지어 전기세, 수도세까지 위법사항이라며 중단하겠다던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합의사항 파기로 비난받고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지회

와 합의하여 지원하던 것들도 중단하겠다던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단협까지 파기하는 것도 한순간에 이뤄질 수 있다. 보쉬자본이 2012년부터 부강의 보쉬전장에서 벌여온 노조파괴가 생각난다.

지부-지회 공동투쟁으로 돌파한다!

지부는 보쉬자본의 노조파괴까지 염두에 둔 노골적인 탄압에 대해 지회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현재의 천막농성을 더욱 강고하게 유지하며, 지회 새 지도부가 선출되어 정상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부의 총파업 투쟁, 천막농성 등에도 보쉬자본은 계속 ‘믿고 기다려 달라’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합의사항 파기였다. 노사간 신뢰는 보쉬자본이 스스로 무너뜨렸다. 신뢰가 무너진 노사관계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보쉬자본에 있다.

보쉬 앞 천막농성은 계속됩니다!

<매일 07:50, 17:30 출퇴근 선전전>



무더운 여름, 뜨거운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나마 시원하게 휴가 다녀오십시오^^